

신경 쓰이고 돈드는 수영장 "퇴출시켜 버려?"

20년 전 스카츠데일로 이사를 온 린 라이트 부부에겐 리조트 스타일의 뒷마당과 수영장이 여전히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겐 큰 자랑거리였다.

라이트 부부는 수영장을 배경으로 찍은 멋진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뉴욕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에 흐뭇함을 느끼며 스카츠데일로 이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근래 아리조나 전체 경제가 나빠지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기비용에 이제 그의 수영장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골치덩어리로 전락해 버렸다.

라이트 부부가 수영장이 있는 근사한 집을 사고 난 뒤 20년 동안 살면서 수영장에서 멋진 시간을 보낸 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10번이 채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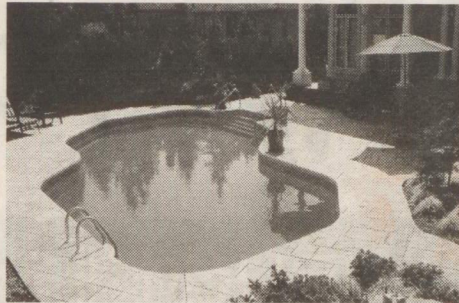
보기엔 멋지지만 처음 수영장에 대해 가진 환상이 이제는 자랑스러움이 아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전기비와 수도요금을 잡아먹는 쓸데 없는 구조물로 전락해 버렸다.

라이트씨는 특히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날이 가장 골치 아픈 날이 된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에 날려온 낙엽과 쓰레기가 수영장에 쌓이면 그것을 치우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탓이었다. 게다가 전기비와 수도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7월 그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물로 약 4만5000갤런을 썼다.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비용이었다.

그래서 라이트 부부는 올해 골치덩어리



인 수영장을 자신의 집에서 퇴출시키기 로 결정했다.

그가 연락한 곳은 수영장 퇴출전문업체인 '덱오버(Deckover)'.

벨리에서 영업중인 '덱오버'사의 제프 겐츠 사장은 "최근 들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장 퇴출에 드는 비용이 평균 6000달러에서 9500달러가 소요되지만 성가신 수영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의 사업체에는 문의전화의 끊이지 않는다.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수영장 퇴출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욱 늘어난다는 게 겐츠 사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영장 퇴출이 수영장을 완전히 메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덱오버'사는 건축공학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골조를 세우고 수영장 위에 '덱(Deck)'을 만들어 수영장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땐 '덱'과 구조물만을 제거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하고 있다.

'덱'으로 수영장을 메운 집은 그 주택

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수영장이 있는 집, 그리고 수영장이 없는 집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고 겐츠 사장은 말했다.

또한 '덱'으로 덮힌 수영장 아래 부분은 창고나 작은 지하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의 '덱'은 물론 잔디를 심을 수 있는 '덱'의 설치도 가능해 누구도 그 아래에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할 수도 있다.

올해 7월 수영장에 '덱'을 까는 공사를

한 라이트 부부는 그들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

전기비는 10%, 수도 사용요금은 50% 이상 절약돼 '덱'을 설치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덱오버'사에 따르면 수영장이 있는 일반 가정집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큰 저택에서도 수영장 퇴출을 원하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면 수영장 퇴출 공사도 고려해 보십시오.

(Kaywon@koreanAZtimes.com)

한 달 사이 총기강도 16건 '상인들 별별'

최근 들어 피닉스와 글렌데일을 중심으로 연쇄 총기강도사건이 발생해 컨비니언 스토어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6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동일범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총기강도사건이 16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이들의 뒤를 쫓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발생한 강도사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15건은 모두 피닉스와 글렌데일 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사건이 벌어진 것은 8월 4일(화)로 센트럴 피닉스 지역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 1시간 동안 4건의 총기강도사건이 벌어졌다.

피해를 입은 한 개스 스테이션의 관계자는 "2명의 강도가 들어와 돈을 요구했



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히고 "둘 모두가 총을 들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용히 돈을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발생한 4건의 사건 범행 용의자의 모습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하고 "이들은 해가 지기 전 주로 오후 시간에 대담하게 범행을 벌이고 있어 가게나 소규모 사업체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aywon@koreanAZtimes.com)